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쌓는

필사적 노트

[시작하면서]

소중한 시작을 노트 위에 적어봅니다

이번 여름을 맞이하면서 우리 기도의 불이 환히 밝혀지길.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켜듯이 우리 기도의 불도 **“PRAY ON”**
이 소중한 시작을 이 노트 위에 적어봅니다.

왜 우리는 필사를 해야 할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 살아 숨쉬는 기도문을 따라서 쓰는 필사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는 기도의 출발점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필사를 하는 당신의 신앙은 더욱 풍성해질 겁니다.

하나, 연하게 프린트된 기도문 위에 자신의 펜으로 마음을 담아 적어봅니다.

둘, 남는 공간에는 마음에 다가오는 기도문을 한 번 더 쓰거나, 떠오른 생각 또는 자신의 기도문을 적어봅니다.

셋, 단지 글만 적지 않고 작은 낙서나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스마트폰에 붙잡혀 사는 현실 가운데

한편의 정갈한 기도문을 적으며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쌓는 시간을 누리시길~

로버트 하디의 기도

성령님께서서는 나의 잘못을
개달게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가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했고 마음이 굳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
더 큰 잘못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잘못을
개달게 하셨습니다



로버트 하디 (1865-1949, Robert A. Hardie)

성령님께서는 나의 잘못을
개단게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가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했고 마음이 굳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
더 큰 잘못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잘못을
개단게 하셨습니다

헨리 아펜젤러의 기도

하나님, 우리는
부활주일 에 여기 왔습니다
부활의 날 죽음의 죄사슬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묶고 있는 족을
끊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을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쿠삼으셔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사용해 주세요

헨리 아펜젤러 (1858-1902, Henry G. Appenzeller)



하나님, 우리는
부활주일 에 여기 왔습니다-
부활의 날 죽음의 죄사슬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밤성을 지키고 있는 줄을
믿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을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구 삼으셔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사용해 주세요

어윤희의 기도

내 목숨을 지어주신
내 마음을 수습해 주십시오
이땅에 자유 독립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윤희 (1881-1961)

내 몸은 죽을지언정
내 마음은 죽을수 없습니다
이땅에 자유도권을
허락해주세요